

쉬츠(徐遲)와 6·25전쟁 문학

- 1950년대 초의 르포르타주 작품을 중심으로 -

金明鶴*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국의 6·25전쟁 문학과 쉬츠
3. 전쟁 시기의 현실에 대한 인식
4. 북한 및 북한인에 대한 묘사
5. 나오며

1. 들어가며

문학은 한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 속에서 그 시대의 중대한 사건들과 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3년 1개월간 지속된 6·25전쟁¹⁾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의

* 高麗大 中日語文學科 博士課程.

1) 현재 6·25전쟁은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6·25사변 혹은 6·25 전쟁이라 부르고, 그 밖에 6·25동란, 한국동란, 한국전쟁이라 부르기도 한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6·25사변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1980년대부터 외국에서 호칭하는 'The Korean War'를 직역하여 '한국전쟁'이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각종 학계와 언론, 출판계에서까지 사용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祖國解放戰爭)'이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일본에서는 '조선전쟁(朝鮮戰爭)'이라 부른다. 그밖에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 '알려지지 않는 전쟁(The Unknown War)'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 전쟁'이라는 호칭은 제삼국에서 벌어진 전쟁을 지칭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동란'과 '사변'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호칭은 6·25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6·25전쟁'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하나였다. 6·25전쟁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지닌 폭력성뿐만 아니라, 좌우 양대 세력의 대립에 휘말려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점과 세계의 열강이 가세한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6·25전쟁이 당대의 한국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다. 문학 방면에서 말하면, 6·25전쟁은 김영랑(金永郎) 등 작가들의 사망을 초래하였고, 이광수(李光洙)·김동환(金東煥)·김억(金億)·박영희(朴英熙)·정인보(鄭寅普) 등 문인들의 납북을 가져왔다. 그 외에도 당시 촉망을 받았던 신인 문학인들이 납북되었거나 행방불명되기도 하였다.²⁾ 1950년대는 한국에서 6·25전쟁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시기이며, 이후에도 여러 작가들이 6·25전쟁에 대해 줄곧 관심을 가져왔다.

6·25전쟁의 중요한 한 측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중국의 참전 문제이다. 1950년 10월 2일, 중국 정치국 상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파병 결정이 기정사실화되었고, 10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군³⁾ 18개 사단의 26만여 명이 압록강을 도강하였다. 마오쩌둥이 “항미원조(抗美援朝)는 3년간에 걸쳐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⁴⁾”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이 중국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6·25전쟁으로 인한 중국군의 인명 피해는 대략 90만 명으로 추산된다⁵⁾. 이 전쟁은 중국 국내의

2)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 20년》, 서울 : 정음사, 1966, 84-85쪽 참조.

3) 6·25전쟁 당시 남한에서는 자국 군대를 ‘국군’, 북한 군대를 ‘괴뢰군’, 미국 군대를 ‘미군’, 중국 군대를 ‘중공군’이라 호칭하였다. 북한에서는 남한 군대를 ‘괴뢰군’, 북한 군대를 ‘인민군’, 미국 군대를 ‘미군’, 중국 군대를 ‘중국 인민지원군’으로 호칭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자국 군대를 ‘중국 인민지원군’, 북한 군대를 ‘조선 인민군’, 미국 군대를 ‘미군’ 혹은 ‘미국 침략자’, 남한 군대를 ‘이승만 괴뢰군’ 혹은 ‘남조선 괴뢰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남한 군대를 ‘한국군’, 북한 군대를 ‘인민군’, 미국 군대를 ‘미군’, 중국 군대를 ‘중국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인용문에 한해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4) 《毛澤東選集》 第5卷(北京 : 人民出版社, 1977, 101쪽) : 抗美援朝, 經過三年, 取得了偉大勝利.

5) 이 숫자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중국 정부는 국내의 정세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할 필요성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6·25전쟁 시기 중국군의 전사자는 183,108명이었다고 한다. 1958년 랴오닝성(遼寧省) 단둥시(丹東市)에 건립된 항미원조기념관(抗美援朝紀念館) 안에 큰 대리석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군의 전사자 수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이완(臺灣)을 통일하려던 중국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연합(UN)으로부터 침략자의 낙인이 찍혀 1970년대 초까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왔으며, 중소분쟁(中蘇紛爭)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되기도 하였다.

레닌(Lenin)은 “전쟁은 정치를 다른 수단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마오쩌둥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며,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전쟁과 정치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오쩌둥에게 있어서 전쟁은 항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이 6·25전쟁에 개입한 이유도 정치 목적의 달성과 실질적 이익의 획득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6·25전쟁으로 조성된 긴장 상태를 반혁명세력 진압을 위한 대중 운동과 결부시켰으며, 지식인들의 사상개조에 충분히 이용하였다. 6·25전쟁 시기에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종군 작가나 기타 신분으로 북한을 다녀갔다. 쉬츠(徐遲, 1914-1996)는 1950년대 초에 《인민 중국(人民中國)》의 기자 신분으로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했으며, 6·25전쟁 체험을 토대로 르포르타주(報告文學)⁶⁾ 작품을 창작하여 발표하였다.

본고는 쉬츠가 6·25전쟁 시기에 창작한 르포르타주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6·25전쟁에 대한 중국 작가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6·25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한 시기를 풍미하였던 르포르타주 창작 사조를 이해하고 쉬츠의 문학사적 위상을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6·25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학설에 대해 진일보의 검토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6·25전쟁 시기에 쉬츠가 창작한 르포르타주 작품, 즉 <평양 폭격 목격담(平壤被炸日擊記)> (1951) · <유린당한 땅을 지나며(走過那被蹂躪的土地)> (1951) · <두 자매(兩

새겨져 있다. 葉永烈, 《眞實的朝鮮》, 天津: 天津教育出版社, 2008, 262-265쪽 참조.

6) 르포르타주는 산문의 일종으로, 문학성이 있는 기사(通訊) · 스케치(速寫) · 특필(特寫) · 취재 보고(采訪報告) 등이 포함된다. 辭海編輯委員會編, 《辭海》,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9, 1844쪽 참조.

姐妹)>(1953) 등으로 한정하여 고찰할 것이다.

2. 중국의 6·25전쟁 문학과 쉬츠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위 38도선 이북의 한반도를 점유하고 있던 북한의 인민군이 38도선을 넘어 이남을 침략함으로써 발발한 전쟁이다. 19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현재까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에 크고 작은 국지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양국의 '인민'은 "죽음과 삶을 같이하기로 맹세했고", "어깨를 나란히 한 형제"⁷⁾와 같은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항일전쟁 시기부터 이루어져 온 것이었다.

중국의 참전이 결정된 후, 중국의 지식인들은 좌담회를 개최하여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950년 11월 6일 중화전국문학예술계 연합회(中華全國文學藝術界聯合會, 약칭 '全國文聯')에 소속된 펑즈(馮至)·텐젠(田間)·러우스이(樓適夷)·왕야핑(王亞平)·벤즈린(卞之琳)·짱커자(臧克家) 등 20여 명의 지식인들이 베이징(北京)에서 '항미원조 선언(抗美援朝宣言)'을 발표하였다.

(전략) 조선은 우리의 친밀한 우방으로서 우리는 일찍이 항일전쟁 중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 우리는 형제간의 의리를 위해서나 우리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나 우리의 형제가 홀로 이 고된 전투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게 놔둘 수 없다. (중략) 조선의 평화, 중국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는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즉각 우리의 위대한 역량으로 조선을 도와야 한다. 조선을 돕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가 무력

7) 郭沫若,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題詞>, 《郭沫若全集》(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60쪽): 援朝誓共死同生, 抗美高揚正義旌。兄弟並肩驅寇盜, 英雄喋血鑄和平。三年激戰人間少, 萬里長城地下橫。鴨綠圖門雙浩蕩, 人民友誼永崢嶸。

으로 파괴하려 든다면 우리도 무력으로 지켜낼 것이다! 이것은 모든 중국 인민의 신성한 의무로서, 우리 전국 시인들의 열정적이고 정의로우며 용맹한 품성은 결코 우리가 동포의 뒤쪽으로 물러서게 하지 않을 것이다!⑧)

중국은 6·25전쟁의 참전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전국적인 ‘항미원조’ 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 정부는 초기 단계에 ‘항미원조’ 운동을 일종의 애국운동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였다. 중국인이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원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고향과 나라를 지키는(保家衛國)” 길이며, 따라서 중국군이 6·25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위적 참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항미원조’ 운동이 중국인의 국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애국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이 운동은 다른 대중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⑨) 중국 공산당은 6·25 전쟁으로 조성된 긴장 상태를 반혁명세력 진압을 위한 대중 운동과 결부시킨 동시에 지식인들의 사상 개조에 충분히 이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철저히 개선시키고 중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는 데 ‘항미원조’ 운동을 이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중국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산당 정권에 대한 신뢰와 열정을 고취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상 개조의 중점 대상은 물론 지식인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조성된 중국 국내의 긴장 상태와 ‘항미원조’ 운동으로 고조된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교묘히 이용하여 지식인들의 머리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구미 선진국들에 대한 의존심, 특히 친미(親美)·숭미(崇美)·공미(恐美)의 사상을 타파하는 작업에 역점을 두었다.⑩)

중국의 6·25전쟁 문학에는 산문(주로 르포르타주)과 소설이 위주이며, 이 두 장르는 1950년대의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 중국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는, 중장편 소설에 루주궈(陸柱國)의 《눈보라 치는

8) 《인민일보(人民日報)》 1950년 11월 7일. 인용문에서의 ‘조선’은 북한을 가리킨다. 이하 같음.

9) 이창형, <한국전쟁과 중국의 정치동원>, 《政正》, 제12권 제1호, 1999년, 108쪽 참조.

10) 이창형, <한국전쟁과 중국의 정치동원>, 112-113쪽 참조.

동부 전선(風雪東線)》(1953) · 《상감령(上甘嶺)》(1953), 양슈(楊朔)의 《삼천리 강산(三千里江山)》(1952), 웨이웨이(魏巍) · 바이아이(白艾) 공저의 《넓은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불다(長空怒風)》(1953), 웨이웨이의 《동방(東方)》(1978), 라오서(老舍)의 《무명 고지에 이름이 생겼다(無名高地有了名)》(1955), 루링(路翎)의 《전쟁, 그것은 평화를 위해(戰爭, 爲了和平)》(1985) 등이 있다. 단편 소설에는 바진(巴金)의 단편소설집 《영웅의 이야기(英雄的故事)》(1953)와 《리다하이(李大海)》(1961), 류바이위(劉白羽)의 단편소설집 《전투의 행복(戰鬪的幸福)》(1954) 등에 실린 작품들 및 루링의 <첫눈(初雪)>(1953) · <전사의 마음(戰士的心)>(1953) · <저지에서의 전투(窪地上的“戰役”)>(1953) 등이 있다. 산문에는 웨이웨이의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誰是最可愛的人)>(1951), 바진의 <영웅들 속에서 생활하다(生活在英雄們中間)>(1953), 텐첸(田間)의 <판문점 기록(板門店紀事)>(1953) 등이 있다.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는 발표된 후에 폭발적인 반향을 얻었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은 ‘중국 인민지원군’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되었다. 루링과 웨이웨이는 중국의 6·25전쟁 문학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지식인 중에 6·25전쟁 시기에 종군 작가나 기타 신분으로 북한을 다녀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웨이웨이는 1950년, 1952년과 1958년에 북한을 3차례 방문했으며, 6·25전쟁에 관한 르포르타주 작품 17편을 창작하였다. 바진은 1952년 3월부터 10월까지 북한에서 7개월간 체류하였고, 정전 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부터 북한에서 5개월간 생활하였다. 그의 6·25전쟁에 관한 르포르타주 작품은 주로 《영웅들 속에서 생활하다》(1953)와 《평화를 수호하는 사람들(保衛和平的人們)》(1954) 등 작품집 2권에 수록되어 있다. 라오서는 1953년 제3회 위문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던 차에 거기에서 5개월간 머물렀다. 루링과 진이(靳以)는 모두 1952년에 북한을 다녀갔다. 쉬츠는 《인민 중국(人民中國)》의 기자 신분으로 1950년 연말과 1953년 여름에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갔으며, 그 체험을 토대로 <평양 폭격 목격담(平

壤被炸目擊記)>(1951)·<유린당한 땅을 지나며(走過那被蹂躪的土地)>(1951)·<두 자매(兩姐妹)>(1953) 등 르포르타주 작품을 창작하였다.

쉬츠는 르포르타주 작가인 동시에 시인이자 편집인이지만,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무엇보다도 르포르타주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쉬츠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70년대에 창작된 르포르타주 작품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치렌산 아래(祁連山下)>(1962)·<지질의 빛(地質之光)>(1977)·<골트바흐의 추측(哥德巴赫猜想)>(1978)·<급류의 소용돌이 속에서(在湍流的渦旋中)>(1978)·<생명의 나무는 항상 푸르다(生命之樹常綠)>(1978) 등 작품들이다.

쉬츠의 작품 연보를 보면, 그는 1937년에 이미 르포르타주 작품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쉬츠의 르포르타주 작품은 양적으로 많지 않았고, 당시 그는 모더니즘 시 창작에서 높은 성과를 올린 현대시파(現代詩派) 시인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평론 <서정의 추방(抒情的放逐)>(1939)과 수필 <여름의 마지막 장미(夏天的最後玫瑰)>(1940)를 발표하여 현대시파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자신의 창작 이념을 전환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인 1940년부터 쉬츠의 작품 중에서 르포르타주 작품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쉬츠가 르포르타주 창작에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였고, 1970년대 말 무렵에 이르러 그 황금기를 맞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950년대는 쉬츠의 르포르타주 창작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초 중국의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 및 6·25전쟁의 영향으로 인하여, 쉬츠의 르포르타주 창작은 다른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6·25전쟁 시기 쉬츠가 창작한 르포르타주 작품 속에서, 그가 북한 및 북한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상화하였고 6·25전쟁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전쟁 시기의 현실에 대한 인식

6·25전쟁 시기의 쉬츠의 작품 중에서 전쟁 시기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작품으로는 <평양 폭격 목격담(平壤被炸目擊記)>과 <유린당한 땅을 지으며(走過那被蹂躪的土地)>를 들 수 있다. 다음은 6·25전쟁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전략) 적개심에 가득 찬 평양 시민들에게 잠시 한 가지 일밖에 없었다. 불을 지피 밥을 지으며 불을 쬐는 것이다. 배부르게 먹어야 이 도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밤새 적의 비행기가 이 시민들을 향해 소사하고 공격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이러한 폭격이 이미 꼬박 6개월이나 지속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아, 평양의 영웅적인 시민들이여, 얼마나 어려웠으랴! 48일간 점령된 후 결국 해방되었지만, 밤새 잠을 잘 수 없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¹¹⁾ (<平壤被炸目擊記>)

위의 인용문의 시간적 배경은 1951년 1월 2일이다. 6·25전쟁 초기 한때 위기에 빠졌던 한국군은 유엔군의 도움으로 1950년 10월 20일에 평양을 점령하고 10월 26일에는 일부 부대가 압록강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같은 해 12월 6일에 평양을 내주고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흥남에서 철수하게 된다. 인민군과 중국군의 계속되는 공세를 받아 한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계속하였고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까지 내주었다. 위의 인용문은 인민군과 중국군이 평양을 탈환한 후 거의 한 달이 된 시점의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1월은 한반도의 기후에서 가장 추운 시기이다. 평양 시내에는 무너진 담벼락

11) 徐遲, 《徐遲文集》(卷3)(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993, 34-35쪽):

…… 暫時間, 對於滿懷仇恨的平壤市民, 也只有這一件事: 燒柴火, 煮飯取暖。恢復這個城市是要吃飽了肚子才能做的。可是, 這樣的一個整夜, 敵機掃射了轟炸了這樣的市民。他們告訴我, 這樣的轟炸已經繼續了整整六個月了! 哦, 平壤的英雄市民, 這是何等的苦難! 在四十八天的淪陷后, 雖然終於解放了, 還是連夜裏都睡不好的, 總是夢魂不安的。

사이에서 교외나 산으로 피난하였던 시민들이 땀감을 줌고 있었다. 시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녀자와 아이들뿐이다.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온 평양 시민들은 아직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문법과 문장 면에서 쉬츠의 르포르타주의 특징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쉬츠는 어기 조사(語氣詞) ‘了’·‘的’ 등을 5번이나 사용하고, 평서문과 감탄문을 혼용하여 전쟁의 참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쉬츠는 이 작품에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9월 말 10월 초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후, 조선 인민군은 부득이 후퇴하면서 병화에 휩싸인 주민과 군인 가족을 대규모로 후방으로 분산시켰다. 그러나 차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수도 평양에서조차 아주 적은 차량만이 분산에 사용되었다. 아이들이 차를 탈 수 있는 편의를 누리게 하려고, 그들(어른들)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마음을 모질게 먹고 몸을 돌려 행렬에서 빠져 나왔다. 그들은 걸어서 후방에 도착한 후, 방법을 생각하여 아이들을 찾아 모일 수밖에 없었다.

먼저 아이들을 후방으로 보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임무를 맡았다. 자동차에 아이들을 가득 실으면, 서둘러 차를 몰고 북쪽으로 나는 듯이 달렸다. 운전자는 이 아이들의 내력을 파악할 겨를조차 없었고, 아이들의 목적지도 몰랐고, 그들을 응당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전쟁의 상황이 긴박하고 형세가 절박하기에, 이 지역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구원한 셈이다. 복수자와 미래의 건설자를 남겨 놓은 것이다.¹²⁾ (<走過那被蹂躪的土地>)

위의 인용문의 시간적 배경은 1950년 9월 말 10월 초이다. 6·25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한국군은 인민군에 압도되어 계속 퇴각하다가, 1950년 8월경

12) 《徐遲文集》(卷3)(30卒) :

還在九月底，十月初，朝人民軍在美軍仁川登陸以後，而被迫後撤的時候，已被戰火燃燒著的居民和軍屬大批的往後方疏散。然而車輛缺乏，即使是首都的平壤，也只有少數車輛可供疏散之用。爲了讓孩子們享有一次乘車的便利，他們只把孩子抱上車去，忍心地背過身子退出行列。而自己步行到了後方，再去想法找到孩子，和孩子們會合。

先得把孩子們送走。有這些司機接受了這樣的任務。當車裏已裝滿了孩子，便趕緊開車向北飛馳。司機既來不及弄清楚這些孩子的來歷，也不知道孩子們的目的地，究竟應該到哪兒放下他們。戰事緊急，形勢迫切，只要能離開這地區，就是把他們搶救出來了。留下了復仇者和未來的建設家。

에 낙동강을 경계로 하는 부산교두보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다.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한국군과 유엔군은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그리하여 9월 28일에는 서울을 탈환하였고, 인민군 주력은 거의 궤멸 상태에 빠졌으며, 한국군과 유엔군은 급속도로 북진을 계속하였다. 같은 해 10월 1일에 한국군이 먼저 38선 이북으로 진격하고, 유엔군은 대기하였다가 10월 7일에 북진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인민군이 공세에서 수세로 몰려 북쪽으로 후퇴를 하던 시점의 사건을 다룬 대목이다.

6·25전쟁은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건,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 남북 쌍방은 모두 참혹한 전화(戰禍)를 경험하게 되었고,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었으며, 한반도의 국토는 거의 폐허로 변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우선 일반 서민에게 떨어지기 마련이고, 자기 측의 군대가 수세에 몰리면 더욱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피난민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동차에 무작정 자신의 자녀를 태워 후방으로 보낸다. 이 인용문의 뒷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피난민은 다행히 자신의 자녀를 찾을 수 있었지만, 찾지 못한 경우도 허다한 듯하다. 6·25전쟁 중에 320만의 피난민과 30만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적 기반을 뒤흔든 결과를 초래하였다.¹³⁾ 이산가족의 상봉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쉬츠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6·25전쟁 시기 북한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문법과 문장 면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그가 서술하고 묘사한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피난민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인민군의 자동차에 태워 후방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피난민들의 자발적인 행위인지 의문스럽다. 이 점은 역사적 사실과 결부하여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13) 최용호·최용성, 《6·25전쟁의 이해》, 서울 : 양서각, 2008, 475쪽 참조.

4. 북한 및 북한인에 대한 묘사

쉬츠는 194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의 문학 방침을 옹호하였고 그 방침에 맞추어 자신의 창작 방향을 정하기 위해 줄곧 노력하였다. 그는 일찍이 1939년에 홍콩의 《정점(頂點)》 제1권 제1기(7월 10일 발행)에 <서정의 추방(抒情的放逐)>이라는 평론을, 1940년에 구이린(桂林)의 《대공보(大公報)》에 수필 <여름의 마지막 장미(夏天的最後玫瑰)>를 발표하여, 현대시파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자신의 창작 이념을 전환하였다. 1945년 8월 28일 마오쩌둥(毛澤東)이 국민정부와의 회담을 위해 옌안(延安)에서 충칭(重慶)으로 갔을 때, 당시 충칭에 있었던 쉬츠는 <마오쩌둥 예찬(毛澤東頌)>이라는 장시를 지어 8월 30일자 <신화일보(新華日報)>에 발표하였다. 그 덕분에 쉬츠는 같은 해 9월 16일에 마오쩌둥과 만날 수 있었고, 일주일 후에는 마오쩌둥으로부터 “시로 뜻을 말한다(詩言志)”라는 친필 제자(題字)를 받았다.¹⁴⁾ 그의 이러한 창작 태도는 그의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숙정(金淑貞)은 대유동(大榆洞)의 부녀동맹 위원장으로, 29세이고 성격이 온화하였다. 남편 김능성(金能聲)은 노동당원으로, 현지 소비조합(儼作社)의 위원장이었다. 그는 일찍이 8월에 인민군에 입대하고 전선으로 떠났지만, 지금까지 그에 관한 소식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방문하자, 그녀가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녀는 우리와 대화하는 한편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과 팔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자녀 셋을 포함하여, 요전에는 아주 작은 침실에 9명의 아이들이 몰려 있었다. (중략) 그녀는 모성의 눈부신 빛을 발산하였고, 눈부신 빛은 이 아이들을 비추었다. 마치 라파엘로(Raffaello Sanzio)가 그린 성모상처럼, 그녀의 머리 위에는 하나의 신성하고 순결한 빛의 고리(光環)가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 어머니의 눈썹에서 늙음하고 범할 수 없는 증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4) 徐遲, <重慶回憶>, 王鳳伯、孫露茜編, 《徐遲研究專集》, 杭州: 浙江文藝出版社, 1985, 36-39쪽 참조.

(중략)

김숙정은 우리에게 요즘 아주 바쁘다고 말하였다. 남자들이 동원되어 참군한 후 많은 일들이 부녀동맹에 떨어졌다. 그녀는 많은 일을 지도하였다. 그녀는 부녀들을 인솔하여 농사를 짓고 전선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양말을 만들고 인민군의 가족들을 돌보았다. 그녀는 또 부녀들을 조직하여 땀감을 마련하고 고기 음식을 분배하기도 하였다. 중국 인민지원군이 온 후, 그녀는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지원군을 위로하는 일을 잘하려고 애썼다. (후략)¹⁵⁾ (<走過那被蹂躪的土地>)

위의 인용문은 북한의 혁명적 여성을 형상화한 대목이다. 대유동(大榆洞)¹⁶⁾의 부녀동맹 위원장인 김숙정(金淑貞)은 성격이 온화할 뿐만 아니라 혁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여성이다. 이 작품에서 북한의 전형적인 영웅인물을 부각한 것은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쉬츠는 “그녀의 머리 위에는 하나의 신성하고 순결한 빛의 고리가 있었다”는 등 과장된 필치로 그녀의 위대함을 강조하였고, “증오(讐恨)” 등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그녀의 애국 정신을 표현하였다.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보다는 후방에서 전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여성 형상을 부각한 작품이야말로, 중국인들의 ‘항미원조’ 운동을 선전하기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은 중국 공산당의 문학 정책을

15) 《徐遲文集》(卷3)(31-32쪽) :

金淑貞是大榆洞的婦女同盟委員長，二十九歲，性情溫和。丈夫金能聲，也是勞動黨員，是當地消費組合(儼作社)委員長。早在8月，他參加了人民軍，開赴前線，但一直到現在，卻一點兒關於他的音訊也沒有。

我們看望了金淑貞，她接待了我們。她一邊和我們說話，一邊用手撫摸著孩子們的臉和手臂。加上她自己的三個孩子，前一個時期內，小小的睡房中曾擁塞著九個孩子。……她，散發著母性的光輝，這光輝照耀了這些孩子。就像拉斐爾所畫的聖母像，她的頭上有一道聖潔的光圈。所不同的是這一位母親的眉睫上，顯露著一種凜然不可侵犯的仇恨。

……

金淑貞告訴我們說，她現在太忙了。男子們被動員參軍以後，許多事情都壓到了婦女同盟身上。她領導了許多工作，帶領婦女種地，做支援前線的事，做襪子，照顧人民軍家屬，組織她們打柴火，還要分配肉食。中國人民志願軍到來以後，雖然語言不通，她要盡一切能力做好慰勞志願軍的工作。……

16) 대유동은 평안북도 동창군(東倉郡)에 있는 산간 도시이다. 이곳은 마오쩌둥의 맏아들인 마오안잉(毛岸英)이 미군의 전투기 폭격으로 전사한 곳이기도 하다.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 어머니 한 분이 정면으로 걸어왔다. 누런 얼굴, 굳어진 시선. 그녀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비칠거리며 걸어왔다. 그녀는 짐을 잃고 남편과 자녀를 잃고 모든 것을 잃고 혼자만 남은 것이 틀림없었다. 느린 발걸음, 굳어진 표정. 눈물을 머금은 동료는 나더러 거리 전체를 보라고 하였다.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마치 '복수'의 화신과 같았고, 거리 전체는 분노의 눈빛으로 번뜩거렸다. 짧은 순간에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복수'의 원천 옆에 있었고, 나는 전 조선의 전투 의지가 굳센 이유를 알게 되었다.¹⁷⁾ (<平壤被炸目擊記>)

위의 인용문은 전쟁으로 집과 가족 등 모든 것은 잃어버린 한 늙은 북한 여성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인용문은 전쟁의 피해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도 '적군'에 대한 중국인의 적개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자는 '복수(復讐)'·'분노(憤怒)' 등 감정적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여 '혐미(嫌美)' 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은 이 작품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붉은 것은 불이고 검은 것은 연기이다. 불빛은 얼음이 언 대동강을 비추고 있고,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미 제국주의자의 흉악한 상관대기를 보여 주고 있다. 그 누가 야수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이 도시를 통째로 삼키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랴!”, “(미군의) 제5항공대대는 세상의 짐승 중에서 최하등의 짐승이다”, “미국 야수는 조선에서, 나치스 독일이 유럽에서 저지른 것보다 더 많은 짓을 저질렀다. 페트리지(제5항공대대 지휘관)와 맥아더가 저지른 죄는 히틀러보다 더 크다!”¹⁸⁾

17) 《徐遲文集》(卷3)(38쪽) :

…… 迎面來了一個母親，焦黃的臉，固定的目光，一手支著一根拐杖，抖巍巍地走上來。她必然是喪失了家，喪失了丈夫，子女，喪失了一切，僅僅在下她一個。遲緩的步伐，凝凍的表情。我那含淚的伙伴又讓我看整條街。街上所有的人都在看見她了。她仿佛是“復仇”的化身。滿街閃亮了憤怒的目光。一剎那間，我體味了一種奇怪的感情。我是在“復仇”的源泉旁邊，我懂得了整個朝鮮的戰鬥意志底堅強的原因。

18) 《徐遲文集》(卷3)(37, 38, 39쪽) : 紅的是火，黑的是煙，火光照著大同冰江，反映的是美帝國主義者的明目張膽的兇惡的嘴臉。誰能容許野獸們這樣瘋狂地將這城市吞噬!(37쪽) 第五航空大隊是世界禽獸中最下等的禽獸。(38쪽) 但是美國野獸在朝鮮，比納粹德國在歐洲還做得更多，伯特力奇(第五航空大隊指揮)和麥克阿瑟所犯的罪，比希特勒還大。(39쪽)(페트리지

등 문장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쉬츠의 르포르타주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구법(對句法)을 많이 사용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누런 얼굴, 굳어진 시선”, “느린 발걸음, 굳어진 표정” 등 구절이다. 이러한 문장은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여 넋을 놓고 있는 한 북한 여성의 형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작자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작자는 그 여성의 내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중국어 사전인 《사해(辭海)》는 ‘르포르타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르포르타주는) 문학성이 있는 기사(通訊)·스케치(速寫)·특필(特寫)·취재 보고(采訪報告) 등에 대한 총칭이며, 산문 장르에 속한다. 생활 속의 실재 인물과 실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적당한 예술적 가공을 하여 인물과 사건이 더욱 전형적인 의미를 띠게 한다. 그러나 허구를 허용하지 않는다.”¹⁹⁾ 그러므로 위의 인용문은 허구를 배제해야 한다는 르포르타주의 창작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우리는 굳센 사람이예요.” 여동생이 말했다. 모두 침묵을 지켰다. 두 자매는 서로 손을 잡았다. 한참 뒤에 내가 “남편의 소식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녀는 “그이 말인가요? 그이는 여수에서부터 전투하면서 돌아왔어요. 그이는 돌아오는 길에 포위망을 뚫고 도시를 해방하였고, 계속해서 38선을 뚫고 자신의 부대와 합류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묻자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알고 보니 그는 인민군의 유명한 장군이였다. (중략) 그녀들은 아주 달콤한 잠에 빠졌다. 이렇게 넓은 땅에서 수년간 떠돌아 다닌 후, 현재 그녀들은 드디어 편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자고 있었다.²⁰⁾(〈兩姐妹〉)

(E.E.Partridge)는 6·25전쟁 시기 미군 제5공군의 사령관이다.—인용자 주)

19) 辭海編輯委員會編, 《辭海》, 1844쪽.

20) 《徐遲文集》(卷3)(45쪽):

“我們是堅強的人。”妹妹說。大家沉默了。姐妹兩人的手拉在一起。過了一會，我問：“你愛人有沒有消息？”她回答說，“他？他是從麗水打回來的。他一路突圍，一路解放城市，一直突過了三八線，和自己的部隊會合。”

我問了她，她把他的名字告訴了我。原來是人民軍裏的一員名將。……她們睡得這樣的香

위의 인용문은 <두 자매>의 한 대목으로, 6·25전쟁이 끝난 직후 안둥(安東, 현재의 丹東)에서 선양(瀋陽)으로 가는 열차에서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두 자매는 한반도에서 혁명 활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망명한 '조선 남성'의 자녀들이다. 두 자매는 모두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언니는 광복 후 북한으로 돌아왔지만 동생은 계속 중국에 남아 있었다. 6·25전쟁이 끝난 후 두 자매는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지만, 언니는 동생을 다시 중국 선양으로 보내 공부를 하게 한다.

이 작품 속에 6·25전쟁에 관한 서술이 그다지 많지 않다. 6·25전쟁이 발발할 무렵, 언니는 인민군의 연대장과 결혼한다. 부대를 이끌고 여수까지 내려갔던 그녀의 남편은 미군이 인천에서 상륙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언니 남편의 행방은 위의 인용문에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언니의 남편에 관한 서술은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작자가 인민군의 영웅적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어낸 듯하다. 언니의 남편이 여수에서 부대를 이끌고 38선 이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도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지만, 작자가 영웅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 또한 의문스럽다. 이것은 “항미원조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이 작품의 주제와 연결하여 고려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쉬츠가 르포르타주 작품에서 허구성을 가미한 것은 르포르타주의 창작 원칙에 위반되는 점이다.

사실성은 르포르타주의 중요한 문제로서, 1930년대에 이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먼저 르포르타주의 사실성에 주목한 사람은 후평(胡風)이었다. 그는 <스케치에 관하여(關於速寫)>(1935)라는 글에서, 르포르타주 작품의 주인공은 현실 속의 인물이어야 하며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1963년 3월 《인민일보(人民日報)》 편집부와 중국작가협회(中國作家協會)가 공동으로 30여 명의 작가와 기자를 모아 르포르타주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좌담회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는 사실성이었다.²²⁾ 1979

話。經過了這麼多年的飄零在偌大的一片土地上，現在，她們終於可以安心地，美美地睡着了。

21) 張春寧, 《中國報告文學史稿》, 北京: 群言出版社, 1993, 147-149쪽 참조.

22) 張春寧, 《中國報告文學史稿》, 338-339쪽 참조.

년 6월 우한사범대학(武漢師範學院)에서 대학교와 출판 업체 31개소의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르포르타주 좌담회가 열렸는데, 르포르타주의 시대정신과 사실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좌담회가 끝난 후 르포르타주의 사실성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간행물에 발표되었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 차례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의 도화선은 쉬츠의 <산문을 다시 말하다(再說散文)>(1978)라는 글이었다.²³⁾ 쉬츠는 이 글에서 “르포르타주는 완전히 실제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그러나 약간의 허구,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은 허구를 허락한다. 만약 비교적 큰 허구가 있다면, 그 작품은 소설로 된다”²⁴⁾는 주장을 내세웠다. 여기에서 쉬츠는 허구의 개념, 허구와 상상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사실성에 영향이 없고 형상적 표현에 도움이 되는 상상 즉 ‘예술적 상상’은 허구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4. 나오며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쉬츠가 6·25전쟁 시기에 창작한 르포르타주 작품을 통해, 6·25전쟁에 대한 중국 작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중국 문학사에서 쉬츠는 르포르타주 창작에서 최고 성과를 거둔 작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가 1970년대에 창작한 르포르타주 작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에서 ‘루쉰 문학상(魯迅文學獎)’과 ‘마오둔 장편소설상(茅盾長篇小說獎)’의 뒤를 이어 ‘쉬츠 르포르타주상(徐遲報告文學獎)’을 만들었고, 2002년에 제1회 ‘쉬츠 르포르타주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3) 張春寧, 《中國報告文學史稿》, 420-421쪽 참조.

24) 王鳳伯、孫露茜編, 《徐遲研究專集》(215쪽) : 速寫, 或稱特寫, 或報告文學, 就完全是實況的寫照了。但也允許略有虛構, 不離真實的虛構。如果有了較大的虛構, 它就變成了小說。(쉬츠가 이 작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르포르타주에 관한 용어의 사용이 아직 혼란한 상태였다.—인용자 주)

쉬츠는 6·25전쟁에 관한 르포르타주 작품에서 전쟁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지만,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적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허구성을 가미하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북한인은 위대한 영웅 인물로 묘사되기가 일쑤였고, 불행한 사람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적군'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극단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건과 인물을 허구적으로 서술하고 묘사하는 것은 르포르타주의 창작 원칙에 위반되는 점이다. 이 점은 분명 그의 작품의 사실성을 떨어뜨린다. 이것은 쉬츠가 허구의 개념, 허구와 상상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초의 쉬츠의 르포르타주 작품에서도 그의 창작 특징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1970년대의 그의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문법과 문장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 사건과 인물을 서술하고 묘사하였는데, 예를 들면 어기 조사(語氣詞)의 반복 사용, 평서문과 기타 문장의 혼용, 대구법 등 수사법의 반복 사용 등이다.

6·25전쟁에 관한 쉬츠의 르포르타주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6·25전쟁과 중국의 정치 상황, 특히 지식인에 대한 사상개조 운동과 연관을 지어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는 중국 국내의 정세와 국제 정세 및 중국 공산당의 문학 방침에 맞추어 자신의 작품에 허구성을 가미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1970년대 작품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점이다. 반면 문법과 문장 면에서의 창작 기법은 그의 1970년대 작품에서도 높게 평가되었던 점이다.

< 參考文獻 >

- 紀宇, <報告文學拒絕虛構——從徐遲先生的《祁連山下》談起>, 《時代文學》, 1997年06期.
- 吉善美, <同聲相應, 同氣相求——中國現代作家筆下的朝鮮>, 《新文學史料》, 2000年03期.

- 김소현, <중국현대시 속의 한국전쟁>, 《中國語文論叢》, 제41집, 2009.
- 박두복 편지,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 백산서당, 2001.
- 박재우, <中國 當代 作家의 韓國戰爭 題材 小說 연구>, 《中國研究》, 제32권, 2003.
- 常彬, 楊羲, <百年中國文學의 朝鮮敘事>, 《中國社會科學》, 2010年02期.
- 徐遲, 《徐遲文集》(卷1-4), 武漢 : 長江文藝出版社, 1993.
- _____, 《我的文學生涯》, 天津 : 百花文藝出版社, 2006.
- 孫丹, <論抗美援朝戰爭的國內宣傳工作>, 《當代中國史研究》, 2009年04期.
- 신영덕, 《전쟁과 소설》, 서울 : 역락, 2007.
- _____,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과 미군·중국군의 형상화 양상>, 《韓中人文科學研究》, 제10집, 2003.6.
- 葉永烈, 《眞實的朝鮮》, 天津 : 天津教育出版社, 2008.
- 王鳳伯, 孫露茜編, 《徐遲研究專集》, 杭州 : 浙江文藝出版社, 1985.
- 王林燕, <抗美援朝戰爭中我軍的典型宣傳>, 《軍事記者》, 2007年09期.
- 우병국, <중국의 한국전쟁 연구현황에 관한 분석>, 《중소연구》, 제29권제3호, 2005.
- 이영구, <巍巍與韓國戰爭文學>, 《中國研究》, 제42권, 2008.
- 李宗剛, <抗美援朝戰爭文學中的英雄敘事分析>, 《商丘師範學院學報》, 2007年11期.
- 이창형, <한국전쟁과 중국의 정치동원>, 《政正》, 제12권제1호, 1999.
- 林偉京, <論抗美援朝戰爭中的政治動員>, 《齊魯學刊》, 2007年01期.
- 張春寧, 《中國報告文學史稿》, 北京 : 群言出版社, 1993.
- 조홍선, <巴金的 韓國戰爭小說 小考>, 《中國語文論譯叢刊》, 제13집, 2004.
- 朱健榮, <중국대륙에 부는 한국전쟁 연구 바람>, 《역사비평》, 제1권제17호, 1991.
- 周鑫, 閻謹, <《志願軍》報與抗美援朝戰爭時期志願軍政治工作>, 《軍事曆史》, 2007年06期.
- 池昌海, <絢爛多彩著錦圖 激情妙筆書心魄——徐遲散文語言分析>, 《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6年01期.
- 진순애, 《전쟁과 인문학—전쟁과 혁명의 문학사》,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 최용호·최용성, 《6·25전쟁의 이해》, 서울 : 양서각, 2008.
- 許蕾, <淺析徐遲報告文學的語言風格>, 《語言文字應用》, 2006年S2期.
- _____, <試論徐遲報告文學的用詞特點>, 《語言文字應用》, 2005年S1期.

< 中文提要 >

本論文通過對徐遲(1914-1996)在六二五戰爭(the Korean War)期間創作的報告文學作品的分析，來考察中國作家對六二五戰爭的認識。這不僅有助於我們從總體上理解六二五戰爭，而且有助於我們理解在中國現代文學史上風靡一個時期的報告文學創作思潮，以及徐遲在文學史上的地位。

在以六二五戰爭為素材的徐遲報告文學作品中，雖然具體描寫了戰爭的慘狀，但是為了高揚愛國之心，為激發對“敵軍”的敵愾之心，使用了誇張法，加入了虛構成份。其作品中出現的北韓人經常被描寫成偉大的英雄人物，同時在描寫人們的不幸時，為激發敵愾之心，常有很極端的描寫。像這樣，虛構地敘述事件和人物，是違反報告文學的創作原則的。這一點顯然降低了其作品的真實性。

以六二五戰爭為素材的徐遲報告文學作品裏出現的特點，應該結合中國的政治狀況，特別是對知識分子的思想改造運動來把握。他迎合國內外形勢和中國共產黨的文學方針，在其作品裏加入了虛構成份，這一點在他20世紀七十年代作品中也受到過指責。

關鍵詞：徐遲，報告文學(Reportage)，六二五戰爭(the Korean War)，戰爭現實，北韓人形象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10.10	2011.11.7	2011.11.17	2011.11.23	2011.11.30